

인 사 말

종정예하의 수승한 지혜의 덕화를 존경하며,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 대종사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후학 대중을 지도하시는 것은 물론 종단 대소사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종단은 불교계 내외로 많은 일들을 마주하며,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와 국민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종단은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종교적 책무를 다해 왔습니다. 이는 한순간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강하게 추진해 왔던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현한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단 내적으로는 선학원 임원진이 제적원을 제출하여 많은 우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단과 종도라는 가장 근원적 사안을 대하는 본질과 취지를 흐리게 하는 일이자, 선학원 설립에 담긴 선대의 고귀한 정신마저 왜곡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헌 9조 3항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종헌 종법을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제적원을 제출한 것은 종도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누구나 인정하듯 같은 종도임을 명백히 하고 종단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 한결같음을 확인하며, 제한받던 권리를 회복하는 긍정의 성과를 위해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는 결과로 이끌어 나가도록 중앙종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민첩하게 대응하여 보물급을 포함한 스물 다섯 건의 도난 정보

를 회수하는 유래없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가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여 많은 전통사찰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큰 경사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간의 불찰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글 천수경을 봉정하여, 칠정례, 반야심경과 함께 일상적이고 중요한 의례는 한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참 뜻을 보다 빠르게 깨칠 수 있고 현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친근한 불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뜻 깊은 결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두가 선대의 스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발원과 원력을 계승한 것이면서도, 이제 가시적인 한걸음씩을 내딛어 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로스님의 건강과 덕화속에서 종단운영의 격려를 경청하고 소임자들은 면밀함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종도의 사표로서 후학을 지도해 주시고 법체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